

정서 단어 분류를 통한 정서의 구성 차원 및 위계적 범주에 관한 연구*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송헌주***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조교수)

나은경****

(한국언론재단 객원연구위원)

김현석*****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이 자신의 정서 표현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기본 목록으로 삼아 개별 정서의 기본 범주를 확인하고 정서의 기본 구성 차원을 밝히는 데 있다. 우리는 한국어 사용 말뭉치에서 도출된 정서목록을 기초로 먼저 정서 표현의 전형성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정서 단어의 집합을 규정하고, 109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115 정서 단어들에 대한 유사성 평가를 수행한 후, 한국인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정서 용어의 분류 및 범주화를 시도했다. 또한 정서 단어의 범주화 자료를 이용해서 정서 분류의 기본 구성 차원은 무엇인지 탐색했다. 연구결과, 먼저 정서의 위계적 구조는 최상위 수준에서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2가지로 구분되며, 그 아래 기본 수준에서는 '기쁨', '궁지', '사랑' 등의 긍정적 정서들과 '공포', '분노', '연민', '수치', '좌절',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들 등 총 9개의 정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의 구성 차원은 긍정-부정의 '태도적 유인가' 차원과 각성-이완의 '활성화' 차원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했다. 이를 3차원으로 확장하면, 앞의 두 차원에 '타인 중심성' 또는 '자기 중심성'에 따라 형성되는 '지향성' 차원이 더해짐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정서의 범주와 구성 차원에 대한 연구결과가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의했다.

key words: 정서, 정서 표현, 정서 단어, 감정, 태도, 유인가, 정서 활성화, 군집분석, 다차원척도분석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 연구소의 연구지원을 받았다.

연구 진행과 코딩을 도와준 서울대학교 정혜란 학생에게 감사를 포함한다.

** jwrhee@snu.ac.kr, 언론과 사회 분과

*** sometime119@hallym.ac.kr

**** eunniena@empal.com

***** pyskim98@snu.ac.kr

1. 문제제기

의사소통에서 기쁨, 슬픔, 분노, 긍지, 공포 등의 개별 정서(discrete emotions) 표현이 차지하는 역할은 중요하다.¹⁾ 정서 표현은 표정을 포함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Ekman, 2003), 언어적 의사소통에서도 필수불가결하다(Planalp, 1999). 정서적 경험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 요소로서, 개인의 정서 경험과 표현은 물론 타인의 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에 이르는 전 과정이 의사소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정서가 의사소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의사소통 연구 중에서 정서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그리고 이런 비대칭성은 한국의 의사소통 연구에서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는 한국의 의사소통 연구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서의 범주나 구성 차원에 대한 기초 연구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사랑', '연민', '걱정' 등과 같은 정서 표현은 서로 어느 정도 유사한가? '질투'나 '안도감'과 같은 정서는 '기쁨'과 '슬픔'과 같은 기본 정서와 같은 수준의 정서라고 말할 수 있는가? 도대체 한국인의 기본 정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어떤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최근 우리나라 의사소통 및 관련 연구 분야에서 정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유권자가 느끼는 분노, 공포, 긍지, 희망 등의 정서가 그들의 인지 과정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이강형, 2004, 2006; 이준웅, 2007; 탁진영, 2006), 광고와 홍보 분야에서도 광고 메시지가 소비자의 정서 형성에 미치는 영향(김성훈, 2005; 양윤·정지현, 2006) 또는 광고에 의해 유발된 정서가 소비자의 인지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리대룡·강미선, 2000; 황인석·박상준, 2002)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런 연구들은 과거 동기적 접근이나 인지적 접근을 중심으로 설명하던 의사소통 행위에 정서라는 새로운 차원을 더해서 설명하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에서 정서의 기능, 원인,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있지만 정서의 범주, 분류체계, 구성 차원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쁨, 슬픔, 분노, 공포, 긍지 등 개별 정서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서 이들 정서들 간의 경험적 구분이 전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경험적 검토는 소홀하다는 것이다.

1) 기존 문헌을 보면 감정, 정서, 감성 등의 개념 사용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의사소통 분야의 연구만 보더라도 이강형(2004)은 emotion을 '감정'으로 affect를 '정서'로 옮겼지만, 송현주(2006)는 한국심리학회 표준 번역을 따라 반대로 emotion을 '정서'로 affect를 '감정'으로 사용했다. 우리는 한국심리학회 표준 번역을 따르기로 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이 자신의 정서 표현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기본 목록으로 삼아 개별 정서의 기본 범주를 확인하고 정서의 기본 구성 차원을 밝히는 데 있다. 또한 정서의 기본 범주가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도 탐구하려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어 사용 말뭉치(corpus)에서 도출된 정서 목록을 기초로 먼저 정서 표현의 전형성에 따라 자주 사용되는 정서 단어의 집합을 규정하고, 규정된 정서 표현 단어들이 서로 함께 묶이는지 아니면 묶이지 않는지 확인함으로써, 한국인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정서 용어의 분류 및 범주화를 시도할 것이다. 또한 정서 단어의 범주화 자료를 이용해서 정서를 구분짓는 기본 구성 차원은 무엇인지 탐색하려 한다.

정서 단어의 범주화와 구성 차원을 통해서 한국인의 기본 정서를 확인하는 연구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특히 의사소통 연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하다. 첫째, 정서의 분류와 구성 차원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개별 정서의 형성과정과 유발된 정서의 효과를 매개하는 과정적 변수들을 정교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권자의 부정적 감성을 자극하는 정치 광고의 경우 그 내용이 ‘공포’에 소구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아니면 ‘분노’에 소구하도록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그 효과를 차별적으로 개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범주적으로 다른 정서의 유발과 그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의 구성에 정교함을 더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인의 정서의 기본 목록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비교 문화적 의사소통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정서적 반응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치심’은 문화에 따라 다른 맥락에서 경험되며, ‘슬픔’ 또한 문화에 따라 표현 양식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인의 수치심이나 슬픔의 경험과 표현이 미국인이나 일본인의 그것들과 같은지 다른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정서가 전체 정서 목록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서 목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서의 비교문화적 동일성과 차이성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서의 분류와 범주화에 대한 자료에 근거해서 개별 정서의 타당한 측정 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정서가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바를 이론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 연구와 연구문제

1) 개별 정서의 구성과 기본 정서

개별 정서의 구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영어의 정서 표현 단어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대표적인 정서 분류 연구결과를 제시하자면, 이자드(Izard, 1977)는 ‘관심’, ‘기쁨’, ‘놀라움’, ‘고난(distress)’, ‘분노’, ‘두려움’, ‘수치’, ‘억겨움’, ‘경멸’, ‘죄책감’을 기본 정서로 제시한 바 있으며, 에크만(Ekman, 1984)은 ‘두려움’, ‘분노’, ‘놀람’, ‘억겨움’, ‘슬픔’, ‘기쁨’을 기본 목록으로 제시했다. 엡스타인(Epstein, 1984)은 ‘두려움’, ‘분노’, ‘슬픔’, ‘기쁨’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이에 ‘사랑’이 포함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그런가 하면, 브레더톤과 비글리(Bretherton & Beeghly, 1982)는 28개월 아동들이 사용하는 정서관련 표현을 연구한 결과, ‘사랑’, ‘호감’, ‘화남’, ‘두려움’, ‘즐거움’, ‘슬픔’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서 용어임을 밝혔다.

정서 분류에 이론적 관점을 도입한 대표적 연구로는 셰이버와 그의 동료들(Shaver, Schwartz, Kirson, & O'Connor, 198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로쉬(Rosch, 1973, 1978)가 제시한 전형성 이론에 따라 정서가 위계적 구조로 표상될 수 있으며, 기본 정서의 목록은 이른바 ‘기본 수준 개념’에 해당될 것이라는 이론적 가정에 근거해서 연구를 수행했다. 로쉬의 전형성 이론에 따르면, 개념은 위계적 구조로 표상되며, 특히 위계 내의 구성원은 전형성에 따라 배열할 수 있는데, 특히 중간 수준에 속하는 ‘기본 수준 개념’이 중요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기본 수준에 속하는 개념(예: 의자)은 상위 수준에 속하는 개념(예: 가구)보다 더 구체적이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하위 수준에 속하는 개념들(예: 접이식 의자)보다 범주 간에 더 큰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셰이버 등은 213개의 정서 단어를 수집해서 전형성을 기준으로 135개를 추출한 후, 분류 작업을 통해서 상위 수준에서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라는 두 범주로 구성되고, 기본 수준에서는 ‘사랑(love)’, ‘기쁨(joy)’, ‘분노(anger)’, ‘슬픔(sadness)’, ‘공포(fear)’, 그리고 ‘놀람(surprise)’ 등 6개의 기본 정서로 범주화됨을 확인했다. 이들은 ‘놀람’은 각성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기본 정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사랑’, ‘기쁨’, ‘분노’, ‘슬픔’, ‘공포’ 등의 기본 정서들이 로쉬가 제시한 ‘기본 수준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또한 다차원적도 기법을 이용해서, 정서의 구성 차원을 탐색했는데, 2차원 구성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차원은 ‘긍정 대 부정’의 평가적 차원이고 두 번째 차원은 정서의 강도를 나타내는 차원임을 확인했다. 특히 정서의 3차원 분석결과 는 오스굿과 그의 동료들(Osgood, Suci, & Tannenbaum, 1957)이 제시했던 평

가, 강도, 활동성의 3차원에 대응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정서의 구성 차원에 대한 대표적 연구 결과로서 러셀(Russell, 1980)이 제시한 정서의 환형모형(the circumplex model of affect)을 들 수 있다. 이 환형모형은 상호연관 되어 있는 정서들을 ‘쾌-불쾌’의 수평 차원과, ‘활성화(각성)-비활성화(이완)’의 수직차원에 따라 배열한 것이다. ‘즐거움(pleasure)’이 쾌와 각성이 동시에 높은 0도에 위치한다면, ‘흥분(excitement)’은 45도, ‘각성(arousal)’은 90도, ‘고통(distress)’은 135도, ‘불쾌(displeasure)’는 180도, ‘절망(depression)’은 225도, ‘졸림(sleepiness)’은 270도, ‘평안(relaxation)’은 315도의 순서로 원형으로 위치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평차원은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는 정서의 유인가(valence)를 의미하고, 수직차원은 생리적 각성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 두 차원을 기준으로 정서 공간의 4분할을 통한 정서분류도 가능하다. 러셀(1983)은 자신의 환형모형이 범문화적으로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크로아티아, 구자라티, 중국(광둥어), 일본 등 네 개의 서로 다른 언어들에 나타나는 정서의 원형 순서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개별 정서의 위치는 약간씩 다르지만 두 개의 정서 구성 차원은 대체로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정서는 ‘쾌-불쾌’의 한 축과 ‘활성화-비활성화’란 다른 한 축이라는 두 개의 차원을 가진 하나의 원형을 그리는 순서로 위치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러셀의 환형 모형은 정서 구성의 기본 차원은 문화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그러나 몇 가지 비판도 제시됐는데, 특히 이차원 모형의 해석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됐다(Larsen & Diener, 1992). 방법론적인 문제 역시 지적됐다. 첫째, ‘쾌-불쾌’와 ‘활성화-비활성화’라는 두 차원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유가 특정 의미를 가진 단어의 집합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다시 말해, ‘행복(happy)’과 ‘비참(miserable)’ 등의 단어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쾌-불쾌’의 차원이 도드라졌을 가능성이 있고, ‘각성(aroused)’과 ‘졸림(sleepy)’같은 단어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활성화-비활성화’ 차원이 도드라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비판은 다섯 개의 언어가 모두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 번역 과정의 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번역의 과정에서 단어의 영어 의미와 구조가 보존되는 방식으로 번역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서의 분류와 기본 구성 차원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연구 등에서 사용된 목록을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각 언어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정서 표현 단어 집합을 먼저 규정하고, 그 정서 단어를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셰이버와 동료들은 이탈리아어 사용자와 중국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재검증 연구를 수행했다(Shaver, Wu, & Schwartz, 1992). 그들은 이탈리아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987년 미국 연구에 사용된 135개의 정서 표현을 그대로 이탈리아어로 번역해서 사용했다. 연구결과, 기본 수준의 정서

는 ‘사랑’, ‘기쁨’, ‘놀람’, ‘동정’, ‘공포’, ‘분노’, ‘슬픔’ 등으로 나와, 미국의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각 기본 정서에 속하는 하위 수준의 정서 표현의 집합은 미국의 연구결과와 미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정서 표현의 문화 간 차이가 주로 하위 수준에서 나타남을 확인했다. 그런데 셰이버 등은 미국과 이탈리아의 기본 정서의 유사성이 같은 135개의 정서 표현 단어를 사용한 데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으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에는 중국인의 정서 표현 전형성을 기준으로 110개의 정서 표현 단어를 별도로 수집해서 연구를 수행했다. 중국인의 정서 분류 결과를 보면, 기본 수준에서도 미국 및 이탈리아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쁨’, ‘분노’, ‘슬픔’, ‘슬픈 사랑(心疼)’, ‘공포’, ‘수치심’ 등이 기본 수준의 정서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미국과 비교해서 ‘사랑’이 빠져 있고, 대신 ‘슬픈 사랑’과 ‘수치심’이 포함된 결과이다. 셰이버 등은 이 결과를 슬픔과 관련된 사랑과 수치심 등과 같은 정서가 중국 문화에서 ‘과잉인지화’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전형성 이론에 의거해 해석하자면, 정서의 위계성과 기본 정서의 대표성 등은 문화 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개별 문화권에 따라 기본 정서에 속하는 하위 수준의 정서가 과잉 인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위 수준에서 문화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2) 정서의 문화적 기초

셰이버와 동료들의 연구나 러셀의 연구를 포함한 문화 간 정서 표현 비교 연구는 정서 경험의 보편성과 문화의존성을 이해하는 데 일차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문화 간 정서 표현과 이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서로 다른 언어문화권의 정서 표현의 차이성과 동일성은 문화 간 의사소통 연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논점을 제공한다. 기존 연구에서 문화 간 ‘정서 표현’의 차이성에 주목한 연구를 보면, 한 문화에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정서 표현이 다른 문화에서는 중요하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이지라시아’라는 일본어는 장애를 극복하려 노력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느끼는 정서를 주로 지칭하는데 이 정서에 해당하는 표현을 영어 단어 목록에서 찾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언어들에는 없는 영어의 정서 단어들도 있다. ‘불안(anxiety)’이라는 정서 단어는 에스키모어와 요루바어에는 찾아볼 수 없다. 중국어에도 영어의 ‘불안’이라는 단어에 등가적으로 번역될만한 단어가 없다. 한편 많은 비서구 문화권에는 ‘디프레션(depression)’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는 관찰도 있다(Russell, 1991).

정서 표현의 문화 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브랜트와 바우처(Brandt & Boucher, 1986)는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푸에르토리코, 스리랑카, 미국 등 8개 문화의 정서 어휘집에서 ‘우울함’에 관한 개념들을 조사했다. 연구결과, ‘우울함’ 군집에 속하는 단어들이 위의 8개 문화의 언어집단 중 인도네시아, 일본, 스리랑카, 미국의 네 개의 언어집단에서만 명확하게 나타났다. ‘우울함’ 군집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네 언어 집단의 정서 어휘집에서도 ‘우울’과 ‘우울 관련 단어’들을 찾아 볼 수 있지만, 그것들은 대체로 ‘슬픔’의 범주에 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를 놓고, 브랜트와 바우처(1986)는 호주, 한국, 푸에르토리코, 말레이시아 네 문화에서는 ‘우울’이란 정서 용어가 그다지 두드러지는 조직적 개념이 아니며, 대신 ‘슬픔’ 군집이 이 네 나라 언어의 말뭉치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브랜트와 바우처는 ‘우울’이라는 정서가 (1) 긍정적인 감정과 무관하고 (2) ‘슬픔’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범문화적인 결과라고 해석했다. 모든 문화가 ‘우울’ 군집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울’ 관련 단어들은 모든 문화에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주로 ‘슬픔’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문화와 사회적 제약과 영향들로 인해 문화에 따라 이 정서가 어느 정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지만, ‘우울’ 정서는 보편적이고 여전히 ‘슬픔’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즉 다른 언어의 정서 단어들이 영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이 영어에서와는 다른 정서를 인식할 수 있다는 러셀 식의 해석을 넘어서, 문화에 따라 등가적인 단어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언어들이 단일 단어들로 표현될 수 있는 단어들 말고도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했듯이, 문화 간 정서 표현 연구의 초점은 기본 정서 목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메스키타 등(Mesquita, Frijda, & Scherer, 1997)에 따르면, 기본 정서들은 인간 잠재력의 일부이며 따라서 모든 문화에 보편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다고 한다. 그들은 대부분의 언어에 ‘슬픔’, ‘기쁨’, ‘분노’, ‘두려움’, ‘역겨움’ 등과 같이 적은 수의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정서들을 뜻하는 제한된 일군의 정서 단어들이 존재하며, 이런 기본 정서 단어들은 각 문화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정서 단어들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메스키타 등은 언어마다 함축적 의미와 정서 용어의 의미에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동시에 강조한다. 단어들이 다양한 언어들에 걸쳐 번역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문화들마다 동일하지 않거나 심지어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토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문화에 따른 정서 단어의 보편성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찾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정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결정적 근거를 정서의 ‘비언어적 표현’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얼굴 표정이 문화에 따라 범주화되는 방식을 연구한 1970년대 초기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미국, 유럽, 남미, 아시아 문화에 걸쳐 8가지

의 개별 정서들(joy, surprise, anger, shame, fear, interest-excitement, distress-anguish, & disgust-contempt)이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한다(Ekman, 1992). 에크만에 의하면, 얼굴 표정을 통해서 ‘행복’, ‘슬픔’, ‘역겨움’, ‘놀람’, ‘분노’, ‘두려움’ 등 여섯 가지 정서들을 표현하는 것은 보편적이며, 이 결과는 인간이 선천적인 정서 인식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행복’과 ‘슬픔’이 가장 강하게 그리고 연구마다 가장 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도 일관성 있게 매우 높은 일치율을 보였으나 몇몇 경우에는 ‘역겨움’과 혼동되기도 했다. ‘두려움’과 ‘놀람’은 공통적으로 혼동되게 나타났는데, ‘두려움’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표정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 표정을 짓는 이들이 종종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한다. 한편, ‘역겨움’의 정서는 여섯 가지의 기본 정서들 중 가장 낮은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츠모토 등(Matsumoto, Consolacion, Yamada, Suzuki, Franklin, Paul, Ray, & Uchida, 2002)의 최근 연구는 다양한 강도로 표현된 얼굴 표정들을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아홉 개의 정서(분노, 경멸, 역겨움, 두려움, 행복, 슬픔, 놀람, 아무 감정 없음, 이외 다른 정서)를 나타내는 얼굴 표정의 사진을 보여주고 각 사진에 대해 어떤 정서가 가장 잘 묘사돼있는지, 그 정서가 표현된 강도는 어떠한지, 그림 속의 표정 짓는 이가 경험하고 있는 강도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평가하게 했다. 미국과 일본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 두 문화 집단 간에 얼굴 표정을 범주화하는 방식에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강도가 높은 수준의 표정을 평가한 참여자들의 점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비해 내적으로 경험하는 정서를 더 낮게 평가하는 반면, 일본인들은 이 수준에서 평가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강도가 낮은 수준의 표정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은 평가에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일본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비해 내적으로 경험되는 정서에 더 높은 평가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일본인들은 낮은 강도의 얼굴 표정을 볼 때에는 표정짓는 이가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다른 한편, 미국인들은 높은 강도의 얼굴 표정을 볼 때 그들이 인식한 정서가 과장된 방식으로 표현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표정 짓는 이가 실제 얼굴 표정이 나타내는 것만큼 강한 정서를 느끼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에크만(1992)은 ‘정서에 관한 신경문화이론’을 통해서 한 사람이 느끼는 정서와 그 사람이 나타내는 얼굴 표정이 일대일 대응을 이루게 하는 보편적으로 프로그램된 정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프로그램된 얼굴의 정서는 모든 문화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이어서 비사회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한다. 그러나 사회적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표현 규칙’이라 불리는, 보편적으로 프로그램된 얼굴의

정서가 작동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억제하는 의식적인 ‘관리 기술’들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 표현 규칙들은 문화마다 다양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으로, 원래는 자동적으로 드러났을 정서적 표현을 강화하거나 줄이거나 중화시키거나 가리는 기능을 한다. 이런 정서 표현이론을 정서 인식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면서, 마츠모토(Matsumoto, 1989)는 모든 문화의 모든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정서적 표현을 인식하지만 개인이 이해했는지에 관한 ‘해석 규칙’들이 문화적으로 구체적인 관습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3) 한국의 정서 분류와 구성 차원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에서도 정서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1990년대부터 한국인이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정서 단어들을 분류하거나, 한국인의 정서 구조를 밝혀내려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는 자연스러운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서의 유발 과정이나 정서유발에 따른 심리적, 행동적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어떤 정서들을 경험하고 어떻게 표현하며, 또한 어떻게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서의 측정척도를 개발할 것인가가 정서 관련 연구의 기초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정서 단어의 확인과 분류, 이를 통한 정서구조의 탐색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유사한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것은 일단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의 말뭉치를 만들고, 다음으로 실험이나 조사 참여자들에게 말뭉치 단어들을 그 유사성에 따라 직접 분류하게 하거나 말뭉치 단어들을 이용해 특정 대상(예를 들면 시)을 평가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요인분석이나 군집분석을 통해 분석하여 정서의 구조와 차원을 검토하는 방식이었다.

초기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이만영과 이흥철의 연구(1990)는 대학생 응답자들의 자유응답을 통해 정서 단어의 말뭉치를 추출한 후 응답자들이 그 단어들을 이용해 한국의 대표적인 시(詩)와 개인의 기분상태를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정서의 차원과 구조를 탐색했다. 그 결과 나타난 정서 구조의 차원은 능동-수동, 쾌-불쾌, 외부지향-내부지향 등이었으며, 이에 따라 분류된 정서는 ‘기쁨’, ‘두려움’, ‘분노’, ‘짜증과 경멸’, ‘슬픔과 괴로움’, ‘각성’의 6개 군집으로 나타났다.

정서 구성 차원에 대한 후속 연구인 안신호·이승혜·권오식(1993)의 연구는 정서 단어를 응답자의 자유응답이 아닌 국어사전에서 정서 단어의 말뭉치를 추출했다는 점과 시나 기분상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응답자들이 정서 단어들을 그 유사성에 따라 직접 분류하게 했다는 점에서 초기 연구와 구분된다. 그러나 정서 구조의 차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제1차원인 쾌-불쾌는 명확하게 드러났으나 제2차원은 해석에 난점을 보였다. 정서의 분류는 선행 연구

와 유사하게 쾌 정서는 단일하게 불쾌 정서는 다양하게 나누어졌다. 강혜자·한덕웅(1994)은 자유응답과 국어사전을 모두 활용하여 정서 단어들을 추출했고, 그 단어들을 두 개씩 짝지어 응답자들에게 유사성을 평가하게 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서 구조의 차원으로는 쾌-불쾌, 활성화, 긴장-이완으로 해석 가능한 3개의 차원이 나왔으며, 분류된 정서는 앞선 연구들과 유사했으나 그 군집의 수는 쾌 정서 2개, 불쾌 정서 5개로 총 7개였다.

유학심리학적 입장에서 정서 단어들을 분류한 한덕웅(2000)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성리학의 4단 7정²⁾에 해당하는 정서 단어들을 추출하여 응답자들에게 그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게 했는데, 4단 7정에는 긍정·부정과 능동·수동이라는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두 차원에 따라 4단 7정에 해당하는 정서 단어들은 ‘사양’, ‘양보’, ‘사랑’, ‘기쁨’의 4개 군집의 긍정적 정서와 ‘측은’, ‘슬픔’, ‘수치심’, ‘두려움’, ‘욕심’, ‘화남/혐오’, ‘분함’의 7개 군집의 부정적 정서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서구 심리학 이론에 기초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긍정·부정의 차원은 쾌-불쾌의 차원과, 능동·수동의 차원은 활성화 차원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정서 단어의 분류 결과 또한 선행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³⁾ 따라서 최소한 이론적 차원에서는 정서의 기본 구조에 대한 동서양의 인식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정서 단어의 말뭉치 작성과 그 구조 및 분류에 관한 대표적 연구로는 박인조·민경환(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선행 연구들이 정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지식이 부족한 대학생들의 자유응답으로부터 정서 단어들을 추출했고, 국어사전에서 선별한 정서 단어들 또한 그 현대적 사용 빈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연구에 사용된 정서 단어 말뭉치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박인조·민경환(2005)의 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 자료집을 기초로 정서 단어 말뭉치를 만들어 연구에 사용했다. 대학생 응답자들에게

-
- 2) 맹자(孟子)에서 설명하는 4단(四端)이란 인간이 생리적으로 지니는 선한 본성이 표출된 정서로서, 측은(惻隱), 수오(羞惡), 사양(辭讓), 시비(是非)를 말하며, 예기(禮記)에 나오는 7정(七情)이란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 경험으로서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오(惡), 욕(欲)을 지칭한다. 4단 7정에 대한 현대심리학적 경험연구를 통한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과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의 타당성 검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덕웅(2000)을 참조하라.
- 3) 한덕웅의 정서 분류 결과가 선행 연구 결과와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4단을 정서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한덕웅도 밝히고 있듯이 4단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서라기보다는 인간의 선한 근본 심성을 말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맥락에서는 제외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긍정 정서는 4단에서 유래한 사양과 양보를 제외한 사랑과 기쁨의 두 군집으로 줄어들게 되며, 이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결과가 된다.

작성된 정서 단어들을 분류시킨 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서 구조는 쾌-불쾌라는 명확한 제1차원과 타인초점적-자기초점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불분명한 제2차원의 두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정서 단어들 또한 쾌-불쾌에 따라 ‘반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정겹다’ 등의 쾌 정서와 ‘괴씸하다’, ‘황당하다’, ‘배신감’, ‘싫증나다’ 등의 불쾌 정서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90년 이후 진행된 우리나라에서의 정서 구조 및 정서 단어 분류에 대한 연구들은 그 사례가 많지도 않고,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한국인의 정서 목록 및 구성 차원에 대한 일반적 명제를 도출하기에는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지 못한 실정이다. 연구 방법도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르며, 유사한 연구 방법을 적용했음에도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이런 연구의 성과가 의사소통학과 광고학 등에 충분히 인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정서 분류에 대한 연구가 정서의 형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로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후속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한국인의 기본 정서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기본 정서의 목록에 포함된 정서들을 의미적으로 구분하는 데 필요한 구성 차원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인의 기본 정서의 목록과 그 구성 차원에 대한 경험적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향후 의사소통학이나 광고학 등의 분야에 정서 변수를 포함한 이론 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될 뿐이다. 예를 들어, 대인간 의사소통을 통한 정서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개별 정서의 인지 평가 이론(the cognitive appraisal theory of discrete emotions)’을 도입하고자 해도, 한국인의 기본 정서는 어떤 정서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정서들 간 유사성과 차이성을 설명할 수 있는 구성 차원은 무엇인지 답할 수 없다면 효과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행히 그동안의 연구들을 통해 최소한 정서 단어 말뭉치는 정세화되었고 이를 활용한 정서 구조 탐색과 단어 분류의 방법론도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정서 단어의 말뭉치와 방법론을 보다 쉽게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문제

이 연구는 한국인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정서 표현 단어를 수집해서, 정서의 전형성을 근거로 대표적인 정서 단어를 추출하고, 추출된 정서 단어를 근거로 분류를 통한 정서 표현 단어의 범주화를 시도하려 한다. 특히 세이버 등의 연구(1987)에서 확인된 이른바 ‘정서 개념의 기본 수준(the basic level of emotion concepts)’에 해당하는 기본 정서를 찾아내려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한국인의 기본 정서의 목록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탐색적인 성격을 띤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기본 정서는 몇 개이며, 각 기본 정서는 어떤 하위 정서 단어들로 이루어지는지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 알아 볼 것이다. 덧붙여, 이 첫 번째 연구문제와 연관시켜서, 기본 정서의 목록이 남녀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려 한다. 만약 정서가 외부적 환경에 대한 개인의 적응에 따라 형성된다는 이론적 가정이 타당하다면(Lazarus, 1991; Plutchik, 1980), 남녀 간 적응 방식의 차이에 따른 기본 정서의 범주적 차이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정서의 의미적 차이를 가능케 하는 구성 차원을 밝히는 것으로, 여기에는 다차원척도분석(MDS: Multi-Dimensional Scaling)를 이용하려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쾌-불쾌’, ‘긍정-부정’, ‘각성-이완’, ‘자기초점적-타인초점적’, ‘지배-비지배’ 등의 정서의 구성 차원이 제시된 바 있지만, 아직 한국인의 개별 정서 간 관계나 의미를 드러내는 일반적 차원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인의 정서 목록을 근거로, 과연 어떤 구성 차원을 기준으로 정서를 구분할 수 있는지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세 번째 결과는 첫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응답을 통해 확인된 한국인의 기본 정서 목록에 포함된 개별 정서들의 의미에 대한 해석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방법

1) 정서 단어 목록 구성

세이버와 그의 동료들(1992)이 제시했듯이, 문화 간 비교를 위한 정서 범주화 연구를 위해서는 각 문화의 전형적인 정서 단어의 목록을 먼저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정서 표현 단어 목록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박인조·민정환(2005)의 연구에 사용된 목록을 활용했다. 그 목록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이 1998년에 제작한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 자료집에 기초한 것이다. 연세대학교 자료집은 1980년대 중·후반 이후 10년간 출판된 신문·잡지·소설·수필·국어교과서 등을 조사해 수집한 빈도 7 이상의 단어 64,666개를 수록하고 있다. 박인조·민정환(2005)은 연구원 10명을 이용해서 이 단어들에서 434개의 정서 단어 목록을 추출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추출된 434개의 정서 단어들에 대한 ‘전형성’(해당 단어가 정서 단어로서 얼마나 적절한지)과 ‘친

숙성(해당 단어가 얼마나 친숙하게 느껴지는지)을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표현 단어목록을 얻었다.

우리는 정서표현 단어목록을 얻는 데에 박인조·민경환(2005)의 연구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들의 연구결과를 활용하기로 했다. 단 정서의 분류와 구성 차원을 알아보기 위한 최종 목록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간결하고 친숙한 정서 단어 목록에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434개의 정서 단어 중에는 생소한 단어도 있고, 의미적으로 중복되는 것도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연구에서는 박인조·민경환(2005)의 연구에서 434개의 정서 단어들에 대한 일반인(대학생)들의 평정결과 전형성 및 친숙성 모두 평균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정서표현 단어 249개와 평점 4.0에는 못 미치지만 4명의 연구자들이 일일이 동의어 검토를 해서 정서 단어 목록에 포함되어야 목록의 포괄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한 단어 16개를 추가해서 총 265개의 정서 단어 목록을 정했다(<부록 1> 참조).

정서 단어 목록에 포함된 정서 단어를 인지도(recognition)와 전형성(prototypicality) 평가를 통해서 추려냈다. 2007년 4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걸쳐 서울대학교와 한림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265개 정서 단어들에 대해 (1) “귀하는 다음의 표현을 아십니까?”(인지도 평가), (2) “당신은 이 표현이 감정이나 정서를 나타낸다고 보십니까?”(전형성 평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물었다. 인지도 평가는 ‘안다’와 ‘모른다’ 중 하나에 답하도록 했고, 전형성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했다.

한편, 이 연구는 불성실응답을 가려내기 위해 두 가지 장치를 고안했다. 먼저, 설문지상에 제시되는 단어들의 순서를 무선적으로 각기 다르게 구성한 네 가지 형식의 설문지 세트를 준비했다. 다음으로, ‘노느다’, ‘너가다’, ‘막장부족하다’ 등 박인조·민경환(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끼워 넣기 문항(filler)을 포함시켰다. 이들 네 단어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우리말이긴 하지만 고어 혹은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전혀 친숙하지 않을 것이라 보았으며, 따라서 이들 단어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한 사람들은 결과분석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불성실응답자는 끼워 넣기 문항의 “당신은 이 표현이 감정이나 정서를 나타낸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보통이다’(3) 이상으로 응답한 사람들, 그리고 각 단어들에 대해 동일한 점수로 계속 응답한 사람들 등으로 규정했다. 수거된 설문지를 검토한 결과, 170명의 참여자 중 36명이 불성실응답자로 분류됐다. 결국 최종 분석에는 134명의 응답이 사용됐다.

끼워 넣기 문항 4개를 제외한 265개의 정서 단어들의 전형성에 대한 설문 참여자들의 평점 평균을 분석한 결과, ‘교감하다’가 3.09로 가장 낮았으며, ‘슬프다’가 4.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1> 참조). 이와 같이 대체로

평균값이 높게 나온 것은, 설문에 사용된 정서 단어들 자체가 기존 연구에서 전형성 및 친숙성 평점이 높은 단어들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인지도 평가의 경우 대부분 265개 정서 단어들을 ‘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각 정서 단어들에 대해 평균 약 99.6%가 ‘안다’고 응답함). 이 역시 설문에 사용된 정서 단어들이 최근 일상 미디어에서 비교적 빈번히 사용되는 단어들 중에서도 기존 연구 결과 전형성 및 친숙성이 높은 단어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조사 대상이 대학생들이라는 점 등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았다. 결국 우리는 인지도 평점이 정서 단어 목록을 구성하는 데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전형성 평점만을 바탕으로 정서 단어 목록을 구성했다.

2) 정서의 유사성 평가와 분석 방법

정서의 범주 차원을 탐색하기 위해 유사성 분류를 수행했다. 정서 단어들의 전형성 평가 설문조사 결과 265개 정서 단어들 중 전형성 점수가 4점 이상인 것들은 149개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단어 수 자체가 조사 참여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서 단어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었다. 기존 연구들을 보더라도 대체로 100개 안팎의 정서 단어들을 바탕으로 유사성 분류 분석을 수행했다.⁴⁾ 따라서 연구자들은 일련의 토론을 통해, 첫째, 유의어들을 묶은 다음 이들을 그 중 대표적인 단어 하나로 줄이고, 둘째, 비록 전형성 평가 점수가 기준(4점)에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의미상 중요한 정서 단어들을 추가했다. 결국 최종적으로 115개의 정서 단어목록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사성 분류 조사를 수행했다.

서울대학교와 한림대학교의 학생과 그들의 친인척 109명이 유사성 분류 조사에 참여했다. 원래 참여자는 120명 이상이었지만 분류결과를 담은 설문지의 성실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한 참여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9명의 자료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참여자에게 앞면에는 정서 표현 단어가, 뒷면에는 고유번호가 적힌 명함 크기의 종이 카드 115장을 제작해서 배포한 후, 시간상의 제한 없이 참여자들이 제시된 정서 단어 카드를 의미상 유사한 것들끼리 자유롭게 분류해 함께 배포된 봉투에 넣도록 했다.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해 봉투의 개수는 최대 12개로 제한했으며, 분류가 끝나면 각 봉투에서 단어

4) 셰이버 등의 연구(1987)에서는 135개 정서 단어, 박인조·민경환(2005)의 연구에서는 87개 정서 단어가 사용됐다.

카드들을 꺼내 별도 배포한 설문지 상에 제시된 12개의 범주 칸에 기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서표현 단어 목록의 분류에 걸리는 시간은 약 15분에서 30분 정도였다. 조사 참가자들은 성별로는 남성 44명, 여성 64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81명, 40대 이상 27명이었다.⁵⁾ 특히, 참가자들의 연령별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하의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수집된 설문용지들을 매트릭스 형식으로 코딩했다. 구체적으로, 조사 참여자 각각의 분류결과를 ‘정서 단어 115개(행)×분류집단(열)’ 형식의 매트릭스로 정리했다. 예컨대, 어느 참여자가 고유번호 3, 7, 17, 55, 77, 102, 111 등 7개의 단어가 한 집단(‘분류집단1’)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했다면, 매트릭스 상의 (3, 분류집단1), (7, 분류집단1), (17, 분류집단1), (55, 분류집단1), (77, 분류집단1), (102, 분류집단1), (111, 분류집단1)에 ‘1’을 코딩하고, ‘분류집단1’ 열상의 다른 부분은 모두 ‘0’으로 코딩했다. 이런 방식의 코딩을 통해 행(정서 단어)의 수는 모두 동일하나, 열(분류집단)의 수는 조사 참여자에 따라 다양한 109개(조사 참여자수)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졌다. 다음으로, 이들 109개 매트릭스를 모두 ‘정서 단어 115개(행)×정서 단어 115개(열)’ 형식의 매트릭스로 변환했다. 이와 같이 새롭게 구성한 115개의 매트릭스는 두 단어가 한 집단에 속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109개 매트릭스를 모두 합해 최종적으로 하나의 115×115 매트릭스를 생성했다. 따라서 가령 109명 전체가 정서 단어 번호 3과 7을 유사한 것으로 판단해 같은 집단으로 분류했다면, 최종적으로 구성된 매트릭스 상에서 (3, 7) 및 (7, 3)의 값은 109가 되며, 같은 방식으로 33명이 17번과 77번을 같은 집단으로 분류했다면, (17, 77)과 (77, 17)의 값은 33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위계적 군집분석을 수행했다. 군집분석 방법으로는 유클리디안 거리(euclidian distance)를 사용한 집단 내 평균연결 방법(within-group average linkage method)을 택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정서 단어 분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남성(n=44)과 여성(n=64)의 유사성 분류 조사 결과 데이터를 각각 군집분석 하였다. 조사 참여자 전체 데이터에 대한 분석방법과 마찬가지로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한 집단 내 평균 연결 방법을 채택했다.

정서의 주요한 차원을 확인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차원척도법을 실시했다. 정서 단어들에 대한 유사성 분류 조사 결과 구해진 각 정서 단어들 간의 거리

5) 전체 109명의 참여자들 중 1명은 분류결과를 기록했지만 자신의 성별 및 연령은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참여자의 분류결과는 분석에 포함하되, 성별 및 연령은 결측치로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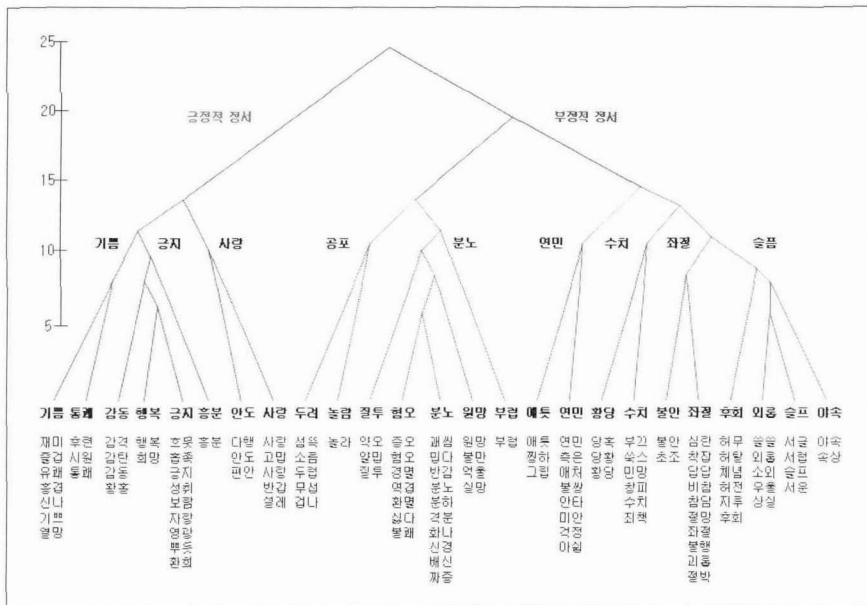
데이터를 바탕으로 ALSCAL을 사용해 분석했다. ALSCAL은 최대 100개의 변인까지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성 분류 연구에서 사용된 115개 중 15개의 단어들을 불가피하게 제외시켜야 했다. 따라서 우리는 115개 정서 단어들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두 단어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 짧은 거리에서 묶이는 것들은 의미상 거리가 매우 가까운 것으로 보고, 이들 중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 하나는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최종 100개의 정서 단어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109명의 정서 단어 유사성 분류 결과 형성된 100×100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영(Young)의 S-스트레스 공식 1’을 사용해 정서의 구성 차원을 탐구했다.

4. 연구결과

1) 정서의 분류와 기본 정서

유사성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한 군집분석 결과인 <그림 1>은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한 정서의 분류 결과를 제시한다. 한국어 정서 단어 군집 중 가장 큰 군집을 보면, 일단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구분되며, 이를 다시 하위차원으로 나누어 보면, ‘기쁨’, ‘사랑’, ‘공포’, ‘분노’, ‘연민’, ‘수치’, ‘슬픔’ 등 7개 군집으로 묶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미를 기준으로 보면, 바로 그 다음 단계인 ‘기쁨’, ‘공지’, ‘사랑’(이상 긍정적 정서), ‘공포’, ‘분노’, ‘연민’, ‘수치’, ‘좌절’, ‘슬픔’(이상 부정적 정서) 등 9개의 개별 정서 군집으로 분류하는 것이 개별 정서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9개의 정서 군집에는 다시 ‘기쁨’, ‘통쾌’, ‘감동’, ‘행복’, ‘공지’, ‘흥분’, ‘안도’, ‘사랑’, ‘두려움’, ‘놀람’, ‘질투’, ‘혐오’, ‘분노’, ‘원망’, ‘부림’, ‘애트’, ‘연민’, ‘황당’, ‘수치’, ‘불안’, ‘좌절’, ‘후회’, ‘외로움’, ‘슬픔’, ‘야속’ 등 25개의 소규모 집단들이 포함됐다. 유사성 평가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인의 정서를 긍정과 부정 단 2개 집단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7개나 9개 집단으로 구분할 수도 있으며, 25개 집단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경험적 연구로 분류적 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기존 연구들이 제시했던 분류결과와 비교해서 어떤 분류가 ‘기본 정서 목록’에 적절한지 고려해서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우리는 9개 군집으로 이루어진 중간 수준이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정서들을 의미적으로 가장 잘 분류한다고 보았다. 물론 이보다 간단하게 보아서, ‘기쁨과 공지’를 묶고, ‘좌절과 슬픔’을



〈그림 1〉 정서의 기본 범주

뛰어서 7개 군집 분류를 택할 수도 있다. 이 결과는 일단 셰이버 등(1987)이 제시한 기본 정서 목록에 더욱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분류하면 ‘궁지’와 ‘좌절’ 등 의미적으로 구분되는 주요 정서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또한 ‘궁지’는 빠지는데 ‘수치’는 포함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결정적으로 ‘연민’이 왜 ‘사랑’ 등 다른 기본 정서와 같은 수준이 되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기쁨’, ‘사랑’, ‘공포’, ‘분노’, ‘슬픔’ 등 어떤 문화에서나 확인되는 보편 정서와 함께 문화 간 정서 비교에 중요한 참조가 된다고 생각하는 ‘궁지’, ‘연민’, ‘수치’, ‘좌절’ 등의 정서를 포함시킨 9개의 정서 범주를 한국인의 기본 정서의 목록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정서의 분류결과를 보면, 긍정적 정서는 ‘기쁨’, ‘궁지’, ‘사랑’ 등의 표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쁨’의 경우, ‘재미있다’, ‘즐겁다’, ‘유쾌하다’, ‘흥겹다’, ‘신나다’, ‘기쁘다’, ‘열광하다’ 등 ‘기쁨’으로 대표될 수 있는 정서 단어들, 그리고 ‘후련하다’, ‘속 시원하다’, ‘통쾌하다’ 등 ‘통쾌함’으로 명명될 수 있는 표현들로 구성되었다. ‘궁지’는 보다 많은 단어들이 보다 복잡한 방식으로 한 군집을 이루었다. ‘감동’, ‘행복’, ‘궁지’, ‘홍분’ 등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랑’은 ‘다행스럽다’, ‘안도하다’, ‘편안하다’ 등의 ‘안도’의 정서와 ‘사랑스럽다’, ‘고맙다’, ‘사랑하다’, ‘반갑다’, ‘설레다’ 등의 표현

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는 긍정적 정서에 비해 더 많은 정서 단어들이 모여 다양한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포’ 정서는 ‘두려움’과 관련된 정서 표현과 ‘놀라움’이 결합해서 구성되었다. ‘분노’는 9가지 기본 정서들 중 가장 많은 정서 단어들을 포함한다. 먼저, ‘증오하다’, ‘혐오하다’, ‘경멸하다’, ‘억겹다’ 등의 표현이 하나로 묶이고, 여기에 ‘원망하다’, ‘불만이다’, ‘억울하다’, ‘실망하다’ 등 ‘원망’의 정서가 합쳐졌다. 그리고 이들 세 군집이 ‘질투’의 정서와 다음 단계에서 묶인 후, 마지막으로 ‘부러움’의 정서와 합쳐짐으로써, 최종적으로 ‘분노’ 정서의 군집을 형성하게 된다.

‘연민’은 ‘애뜻함’의 정서와 ‘연민’의 정서를 포괄하는 정서였다. ‘수치’의 정서의 경우, ‘당혹’과 ‘수치’로 구성되었다. 한편, ‘좌절’은 ‘불안하다’, ‘초조하다’ 등의 표현과 ‘좌절’과 관련된 표현들이 모여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슬픔’ 역시 ‘궁지’ 및 ‘분노’와 마찬가지로 다른 군집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서 단어들로 구성된다. 먼저, ‘외로움’과 ‘슬픔’의 정서가 묶인 후, 다시 ‘아삭함’과 ‘허전 또는 후회’ 등의 정서표현이 더해져서 기본 정서 군집이 되었다.

2) 정서 단어 범주의 성차

정서 단어의 유사성 분류 조사 결과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라 범주화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기본 정서가 ‘기쁨’, ‘사랑과 궁지’, ‘공포’, ‘분노’, ‘당황’, ‘수치’, ‘연민’, ‘좌절’, ‘후회’, ‘슬픔’ 등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기쁨’, ‘궁지’, ‘사랑’, ‘공포’, ‘분노’, ‘수치’, ‘연민’, ‘아삭’, ‘좌절’, ‘슬픔’ 등이 기본 정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은 남성과 여성의 긍정적 정서 단어의 범주화 양상을 비교해서 보여준다. 분석 결과, 대체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긍정적 정서를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남성은 긍정적 정서가 ‘기쁨’과 ‘사랑과 궁지’의 두 가지로 묶여서 군집화된 반면, 여성은 ‘기쁨’, ‘궁지’, ‘사랑’ 등 세 범주로 묶여서 나타났다. 아울러 각 기본 정서를 이루는 세부 정서 단어들의 묶임 역시 성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재미있다’, ‘즐겁다’ 등 ‘기쁨’에 해당하는 표현과 ‘흥분’이 모여 ‘기쁨’이라는 기본 정서의 군집을 형성한 데 반해, 여성은 ‘기쁨’과 ‘통쾌’에 관련된 표현으로 정서가 형성되었다. 또한 여성의 경우 ‘감동’, ‘희망’, ‘궁지’ 등이 묶여서 하나의 기본 정서 군집을 이루고, ‘안도’와 ‘사랑’이 결합해서 하나의 정서 군집을 이루지만, 남성은 ‘궁지’와 ‘사랑’의 정서가 상호구분 되지 않고, 섞여서 하나의 군집을 구

〈표 1〉 남성과 여성의 긍정적 정서 표현 단어 군집

남 성		여 성	
기본 정서	정서 단어	기본 정서	정서 단어
기쁨	재미있다 즐겁다 신나다 유쾌하다 흥겹다 열광하다 환희를 느끼다 통쾌하다 기쁘다* 열망하다 속 시원하다 후련하다	기쁨	유쾌하다 재미있다 즐겁다 흥겹다 신나다 기쁘다* 열광하다 열망하다
	흥분하다*		속 시원하다 후련하다 통쾌하다*
사랑+ 금지	사랑스럽다 사랑하다* 고맙다 반갑다 설레다	금지	감격하다 감탄하다 감동하다* 황홀하다
	다행스럽다 안도하다*		행복하다 희망을 느끼다*
	감격하다 감동하다* 감탄하다 황홀하다		호뭇하다 흡족하다 긍지를 느끼다* 자랑스럽다 보람차다 성취감 느끼다 영광스럽다 뿌듯하다 환희를 느끼다
	호뭇하다 흡족하다 뿌듯하다* 편안하다		다행스럽다 안도하다* 편안하다
	긍지를 느끼다* 성취감 느끼다 보람차다 자랑스럽다 영광스럽다 희망을 느끼다 행복하다	사랑	사랑스럽다 사랑하다* 고맙다 반갑다 설레다
	부럽다*		

* 각 세부 군집의 대표 정서

성했다.

부정적 정서 표현 단어에서도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났다(<표 2> 참조). 흥미롭게도, 긍정적 정서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더 잘 구분된 반면, 부정적 정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 부정적 정서가 ‘공포’, ‘분노’, ‘당황’, ‘수치’, ‘연민’, ‘좌절’, ‘후회’, ‘슬픔’ 등의 8가지 기본 정서로 분류되어 나타난 반면, 여성은 ‘공포’, ‘분노’, ‘수치’, ‘연민’, ‘야속’, ‘좌절’, ‘슬픔’ 등의 7가지였다.

성별에 따른 부정적 정서 단어의 범주화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남성의 경우 ‘섬뜩하다’, ‘소름끼치다’ 등 ‘두려움’에 ‘절박하다’라는 정서가 더해져 ‘공포’라는 기본 정서군을 이루고 있는 데 반해, 여성은 여기에 ‘놀라다’가 묶여 ‘공포’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분노’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기본 정서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군집을 이루는 세부적인 정서 단어들의 묶임 양상은 각각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성은 ‘질투’, ‘분노’, ‘불만’, ‘억울’, ‘실망’, ‘죄책감’ 등이 기본 정서인 ‘분노’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혐오’, ‘분노’, ‘억울’, ‘실망’, ‘홍분’ 등의 세부 정서 군집이 이 기본 정

〈표 2〉 남성과 여성의 부정적 정서 표현 단어 군집

남 성		여 성	
정서	정서 표현	정서	정서 표현
공포	섬뜩하다 소름끼치다 두렵다* 무섭다 겁나다	공포	섬뜩하다 소름끼치다 두렵다* 무섭다 겁나다
	절박하다*		놀라다*
분노	악오르다 알밋다 질투하다* 반감을 느끼다 원망을 느끼다 괘씸하다 밉다 증오하다 혐오하다 신경질나다 화나다 역겹다 싫다 분노하다* 분노하다 경멸하다 격분하다 불쾌하다 배신감 느끼다 원망하다 불만이다* 짜증나다	분노	역겹다 혐오하다* 경멸하다 증오하다 원망을 느끼다 싫다 불쾌하다 불만이다 악오르다 알밋다 분노하다* 화나다 격분하다 분노하다 괘씸하다 밉다 반감을 느끼다 신경질 나다 짜증나다 배신감 느끼다 원망하다 질투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실망하다*		실망하다*
	죄책감 들다*		홍분하다*
당황	당혹하다 당황하다* 황당하다 놀라다	수치	당혹하다 당황하다* 황당하다
수치	부끄럽다 쑥스럽다 민망하다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쑥스럽다 민망하다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죄책감 들다
연민	애뜻하다* 찡하다 그림다 불쌍하다 측은하다 애처롭다 안타깝다 연민을 느끼다* 미안하다 아쉽다 걱정하다	연민	애뜻하다* 찡하다 연민을 느끼다* 측은하다 애처롭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미안하다 걱정하다 그림다
			부럽다*
좌절	심란하다 착잡하다 답답하다 불안하다*	좌절	불안하다* 초조하다
	비참하다 참담하다 불행하다 절망하다 괴롭다 좌절하다*		절망하다 좌절하다* 비참하다 참담하다 불행하다 괴롭다 답답하다 절박하다
후회	허무하다 허탈하다 허전하다 후회하다* 체념하다 초조하다	야속	서운하다 속상하다 야속하다*
슬픔	서글프다 서럽다 슬프다* 서운하다 속상하다	슬픔	서글프다 서럽다 슬프다* 심란하다 체념하다 허탈하다 허무하다 허전하다 쓸쓸하다 외롭다* 소외감 느끼다 우울하다 상실감 느끼다 착잡하다
	쓸쓸하다 외롭다 소외감 느끼다 우울하다 상실감 느끼다* 지루하다 야속하다		지루하다*
			아쉽다*
			후회하다*

* 각 세부 군집의 대표 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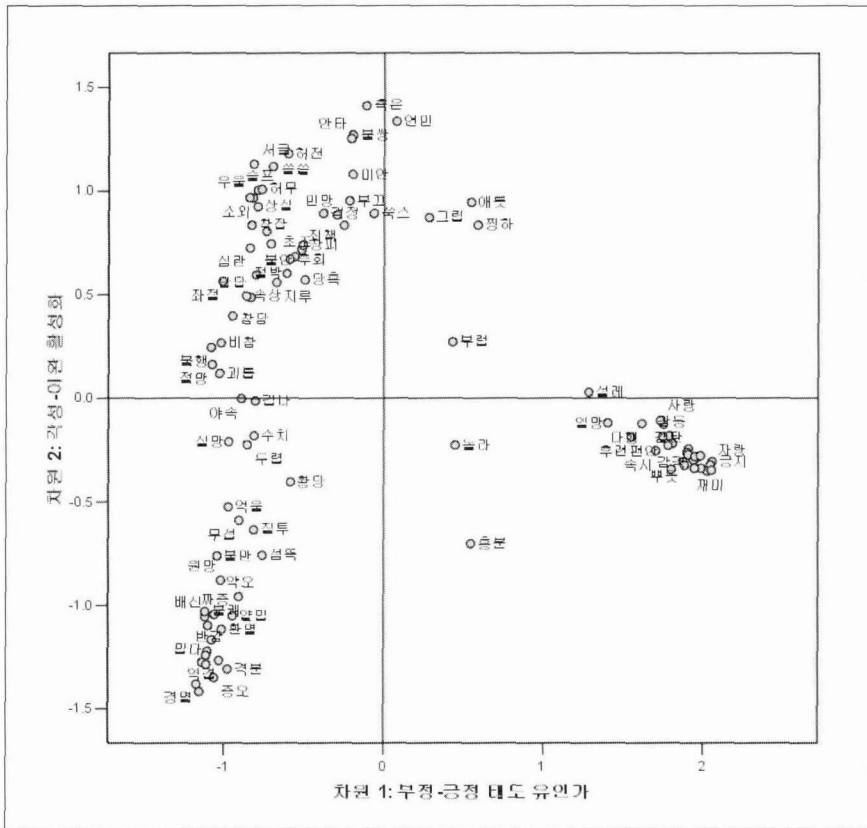
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분노’라는 기본 정서를 구성하는 개별 정서 단어들은 대체로 비슷했다. 다만 남성의 경우 여성과 달리 ‘죄책감 들다’가 ‘분노’의 기본 정서 군집에 포함된 반면, 여성은 남성과 달리 ‘홍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남성들의 정서 단어 분류 조사 분석 결과에서는 ‘당황’과 ‘수치’가 서로 다른 기본 정서로 발견되었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 이들 정서 단어들이 대부분 ‘수치’라는 기본 정서 하나로 군집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들에게는 ‘분노’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진 ‘죄책감 들다’라는 정서 단어가 여성들에게는 ‘수치’의 정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연민’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기본 정서로 발견되었으며, 이 기본 정서에 속하는 개별 정서 단어들 역시 ‘애뜻하다’, ‘짹하다’, ‘그립다’, ‘불쌍하다’, ‘측은하다’, ‘애처롭다’, ‘안타깝다’, ‘연민을 느끼다’, ‘미안하다’, ‘아쉽다’, ‘걱정하다’ 등으로 비슷했다.

‘야속’은 여성들에게서만 고유하게 발견되는 기본 정서였다. 이 정서 단어들은 남성들의 경우 ‘슬픔’이라는 기본 정서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후회’는 남성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기본 정서라는 점이 흥미롭다. 이 정서 단어들은 여성들의 범주화 체계에서는 대체로 ‘슬픔’의 정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슬픔’의 정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발견되는 기본 정서이긴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범주화 방식 및 해당 정서 단어들의 구성이 조금씩 달랐다. 남성의 경우, ‘슬픔’과 ‘상실감’이 ‘슬픔’이라는 기본 정서를 구성한 반면, 여성은 ‘슬픔’, ‘외로움’, ‘지루함’, ‘아쉬움’, ‘후회’ 등이 ‘슬픔’에 포함됐다.

3) 정서의 구성 차원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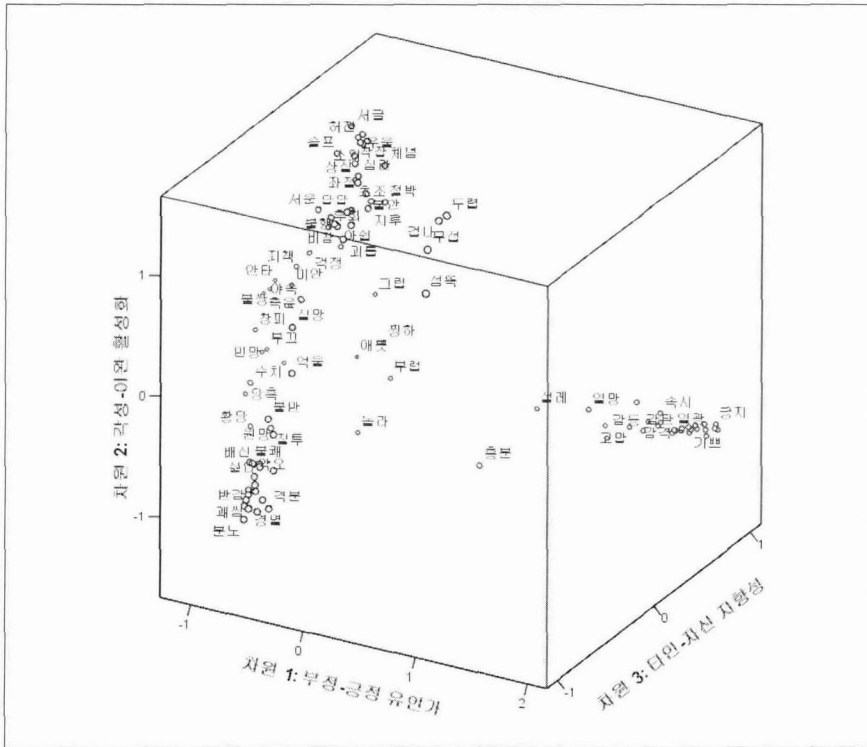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한 정서의 구성 차원에 대한 분석결과는 군집분석을 이용한 정서 분류작업의 결과 얻은 개별 정서들의 의미적 차원을 드러내 준다. 즉 단순한 분류결과가 아닌, 분류된 정서들을 포괄하는 하위 차원에 대한 설명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2차원 구조를 도출해 보았다(<그림 2> 참조). 이 결과의 스트레스 값은 .186였고, R^2 는 .936이었다. 스트레스 값만 보면,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보통’보다는 ‘나쁨’에 가까운 정도여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차원 구조의 첫 번째 차원은 ‘경멸하다’, ‘분노하다’, ‘패썸하다’, ‘불쾌하다’, ‘화나다’ 등이 한 극을 차지하고 ‘즐겁다’, ‘궁지를 느끼다’, ‘자랑스럽다’, ‘재미있다’, ‘환희를 느끼다’, ‘기쁘다’ 등이 다른 한 극에 위치했다. 따라서 이 차원은 ‘부정-긍정’의 유인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 차원은 ‘분노하다’, ‘경멸하다’, ‘증오하다’, ‘격분하다’, ‘밟다’, ‘패썸하다’, ‘억겁다’ 등이 한 극을 이루었고, ‘측은하다’, ‘연민을 느끼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허전하다’, ‘서글프다’, ‘쓸쓸하다’ 등이 다른 한 극을 구



〈그림 2〉 유사성 분류 조사 자료의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2차원)

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차원은 ‘각성-이완’의 활성화 차원으로 보았다.

<그림 3>은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발견된 3차원 좌표상의 정서 단어들의 위치를 보여준다. 스트레스 값은 .126($R^2=.961$)으로, 일반적인 해석상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다. 3차원상의 정서 단어들의 위치 분포는 2차원 다차원척도 분석결과가 제시한 내용에 비해 더 명확하게 구분됨을 발견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축에 위치한 정서 단어들의 위치 배열을 보면, 그 결과가 2차원 분석 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축에서는 ‘경멸하다’, ‘분노하다’, ‘패썸하다’, ‘불쾌하다’, ‘화나다’, ‘밉다’ 등이 한 극을 이루고, ‘즐겁다’, ‘자랑스럽다’, ‘공지를 느끼다’, ‘재미있다’, ‘환회를 느끼다’, ‘기쁘다’ 등이 반대편 극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이 차원은 ‘부정-긍정’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두 번째 축은 ‘분노하다’, ‘경멸하다’, ‘증오하



〈그림 3〉 유사성 분류 조사 자료의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3차원)

다, ‘밟다’, ‘괘씸하다’, ‘역겹다’ 등이 한 극을, ‘허전하다’, ‘서글프다’, ‘쓸쓸하다’, ‘슬프다’, ‘측은하다’, ‘허무하다’, ‘안타깝다’ 등이 다른 한 극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차원 역시 2차원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각성-이완’의 활성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한국어 정서 단어들의 세 번째 차원은 앞-뒤 축의 위치를 통해 속성을 추론할 수 있다. 다차원척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측은하다’, ‘연민을 느끼다’, ‘부끄럽다’, ‘쑥스럽다’, ‘불쌍하다’, ‘애뜻하다’, ‘당혹하다’, ‘민망하다’ 등이 한 극을 이루었고, ‘두렵다’, ‘무섭다’, ‘겁나다’, ‘섬뜩하다’, ‘절망하다’, ‘좌절하다’, ‘체념하다’ 등이 다른 한 극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인조·민경환(2005)의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차원으로서, 우리는 이를 정서의 초점이 타인에게 있느냐 자신에게 있느냐에 따라 서로 구분되는 차원, 즉 ‘타인-자신’의 정서 지향성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5. 결론 및 토론

이 연구에서 우리는 정서표현 단어의 목록을 규정하고, 규정된 115개의 정서 단어를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함으로써, 정서의 위계적 범주와 정서 구성의 기본 차원을 알아보았다. 특히 세이버와 동료들의 연구(1987)를 비롯한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기본 정서의 목록' 개념을 받아 들여, 한국인의 기본 정서는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한 정서의 분류 작업을 수행했다. 덧붙여 이렇게 분류된 정서를 설명하는 구성 차원은 무엇인지 탐구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성 분류 자료를 근거로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본 수준에서 '기쁨', '궁지', '사랑' 등 긍정적 정서들과 '공포', '분노', '연민', '수치', '좌절', '슬픔' 등 부정적 정서들 등 총 9개의 정서 범주로 나눌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 결과는 세이버와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사랑', '기쁨', '분노', '슬픔', '공포' 등 5개의 기본 정서에 '궁지', '연민', '수치', '좌절' 등이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보편적 정서 목록에서 크게 벗어난 결과가 아니면서, 동시에 한국인 정서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 9개의 기본 정서 목록과 그에 속하는 25개 정서를 다른 문화권에서 확인된 정서 목록과 비교하면, 한국인의 정서의 특수성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세이버 등(1992)의 중국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슬픈 사랑'과 '수치심' 등이 발견되는데, 이 정서들은 이 연구가 제시한 기본 정서 중 '연민'과 '수치심'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연민'과 '수치심' 관련 정서는 미국 등 서구권 문화와는 구분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등 동북아시아 문화권에서 두드러지게 인식되고 또한 경험되는 기본 정서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확인된 9개의 정서 중 '좌절'은 이자드(Izard, 1977)의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관심', '기쁨', '놀라움', '고난', '분노', '두려움', '수치', '억제움', '경멸', '죄책감' 등 10개의 기본 정서 목록에 포함된 '고난'과도 유사한 것으로서, 의미적으로 보아 '불안하다', '심란하다', '비참하다', '절망하다', '불행하다', '괴롭다', '절박하다' 등을 포괄하는 기본 정서이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있어서 '좌절' 정서는 '슬픔'과도 구분되고, '공포' 또는 '놀라움'과도 구분되는 기본 정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연구에서 확인된 9개의 기본 정서의 범주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보편적 정서 목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동시에 '연민'과 '수치심'과 같은 한국인의 정서 경험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기본 정서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정서의 기본 목록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 미묘한 차이가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기본 정서는 '기쁨', '사랑과 궁지' 등 긍정적 정서와 '공

포', '분노', '당황', '수치', '연민', '좌절', '후회', '슬픔' 등 부정적 정서로 구성되었으며, 여성은 '기쁨', '궁지', '사랑' 등 긍정 정서와 '공포', '분노', '수치', '연민', '야속', '좌절', '슬픔' 등 부정적 정서로 이루어졌다. 남성은 부정적 정서가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여성은 긍정적 정서가 세분화되어 있으며 특히 '사랑'이 독립된 정서로 취급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여성은 '야속'이 고유하게 나타나는 기본 정서였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후회'가 고유하게 발견되는 기본 정서였다. 이런 결과들은 결국 정서의 표현과 경험에 남녀차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 처한 남녀의 정서적 반응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남녀 간의 의사소통도 서로 다른 정서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남녀 간 의사소통의 기능 및 효과의 정서적 기초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개별 정서들에 대한 의미적 구분과 해석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정서 구성의 차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정서의 차원은 2차원으로 보는 것보다 3차원 분석결과가 더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2차원 구조를 보면, 첫 번째 차원은 '긍정 대 부정의 유인가 차원'으로,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각성 대 이완의 활성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3차원 구조의 첫 두 차원은 2차원 구조의 그것과 같았으며, 세 번째 차원은 '타인 중심성' 또는 '자기 중심성'에 따라 형성되는 '타인-자신 지향성'으로 보았다. 정서의 구성 차원이 기본적으로 '긍정-부정'과 '각성-이완'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강혜자·한덕웅, 1994; Shaver et al., 1987; Russell, 1980). 또한 3차원 구조의 마지막 차원인 '타인-자기 지향성'은 박인조와 민경환의 연구(2005)에서 확인된 정서의 두 번째 차원인 '타인초점적-자기초점적' 차원과 내용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비록 정서의 분류 목록은 연구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그 정서 목록에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 차원은 대체로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후속 연구에 대해 이론적·방법론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이 연구에서 확인된 기본 정서의 목록과 정서의 구성 차원에 대한 결과는 향후에 수행될 정서 경험의 구성과 정서의 효과 등에 대한 이론적 명제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개별 정서의 인지 평가 이론'에 따르면, 정서는 개인이 특정 상황에 대해 내리는 개인의 목표와 일치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자신의 대처 능력 등에 의해 촉발된다고 한다(Lazarus, 1991; Roseman, 1991). 따라서 이 이론이 타당하다면, 실험적으로 같은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서 도출되는 정서 용어가 다른 까닭은 개인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성립한다. 우리는 이러한 추론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확인된 기본 정서의 목록과 각 기본 정서에 포함된 하위 정서 표

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정서의 효과연구도 마찬가지다. 광고 메시지에 표현된 ‘연민’, ‘애뜻함’, ‘서글픔’, ‘후회’ 등이 서로 같은 효과를 낳는지 아니면, 다른 효과를 낳지 검토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연민’은 ‘애뜻함’과 함께 묶이지만, ‘서글픔’이나 ‘후회’는 ‘슬픔’에 속하는 하위 정서로서 ‘연민’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연민’과 ‘슬픔’은 서로 다른 정서의 경험이며 그 효과도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확인된 기본 정서에 대한 동의어 집합을 이용해서 개별 정서의 측정에 대한 방법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구를 보면, ‘공포’, ‘분노’, ‘희망’, ‘궁지’ 등과 같은 변수를 구성하면서 단일 문항으로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의 동의어 집합을 이용해서 측정한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공포’를 측정하기 위해서 ‘섬뜩하다’, ‘두렵다’, ‘겁나다’, ‘놀라다’ 등의 정서 표현을 동원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기본 정서의 분류와 구성 차원에 대한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각 개별 기본 정서의 측정에 필요한 정서 표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개별 정서의 기본 범주를 다른 문화에서 확인된 정서의 기본 범주와 비교함으로써 정서의 문화 간 동일성과 차이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쁨’, ‘사랑’, ‘공포’, ‘분노’, ‘슬픔’ 등의 기본 정서가 범문화적인 범주인지, 아니면 개별 문화마다 고유하며 문화 간 차이성을 보이는 문화특정적 범주인지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Ekman, 1992; Russell, 1991). 이런 논쟁은 최종적인 결론이 갖는 함의도 중요하지만 논쟁 중에 문화와 의사소통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논쟁에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정서 경험과 표현을 문화 간 비교한 연구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정서 표현의 분류, 그에 따른 기본 정서 목록의 구성, 그리고 정서의 구성 차원에 대한 확인 등 기초연구가 부실한 데 기인한다고 본다. 이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문화 간 정서 표현의 차이에 대한 연구 등을 기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단 이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논의하자면, 정서의 구분을 가능케 하는 정서의 구성 차원에 대한 분석결과 ‘긍정·부정 유인가 차원’과 ‘각성·이완 활성화 차원’의 2차원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다른 문화권에서 확인된 연구결과와 같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분류된 기본 정서의 범주를 보면, 한국인에게서는 ‘연민’과 ‘수치심’ 등이 기본 정서로 포함되는 등 서양의 연구결과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서의 구성 차원은 문화 간 차이가 거의 없지만, 개별 정서의 분류에는 문화특정적 차이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별적인 기본 정서에 포함되는 하위 수준의 정서 범주들은 문화 간에 눈에 띄는 차이성을 보인다고 정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해자·한덕웅 (1994). 정서의 공발생 경험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3권 1호, 207~218.
- 김성훈 (2005). 감정적 반응이 공익광고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광고학 연구』, 16권 1호, 163~181.
- 리대룡·강미선 (2000). 정서적 광고소구에 대한 한국과 프랑스의 소비자 반응비교. 『광고학연구』, 11권 1호, 179~198.
- 박인조·민경환 (2005).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권 1호, 109~129.
- 송현주 (2006). 대통령에 대한 감정과 정책 이슈의 유인가적 유사성이 뉴스매체의 점화효과에 미치는 영향: 접근가능성과 적용성 모형의 경험적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3호, 308~337.
- 안신호·이승혜·권오식 (1993). 정서의 구조: 한국어 정서단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7권 1호, 107~123.
- 양 윤·정지현 (2006). 감정편의 일치성, 감정강도 및 제품범주가 광고태도와 상표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소비자, 광고』, 7권 3호, 331~349.
- 이강형 (2004). 대통령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이 후보 이미지 변화에 미치는 효과: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토론회 패널 조사 연구.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346~374.
- 이강형 (2006). 정치후보에 대한 유권자 감정 유발 요인 및 미디어 캠페인 활동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0권 3호, 337~367.
- 이만영·이홍철 (1990). 형용사 서술 의미의 구조에 대한 연구 - 정서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실험』, 20권, 118~138.
- 이준웅 (2007).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형성과 정치적 효과. 『한국언론학보』, 51권 5호, 111~138.
- 탁진영 (2006). 텔레비전 정치광고가 후보자 이미지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 시간적 경과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5호, 328~354.
- 한덕웅 (2000). 대인관계에서 4단 7정 정서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권 2호, 145~166.
- 황인석·박상준 (2002). 광고음악이 유발하는 감정이 메시지 기억에 미치는 영향. 『광고연구』, 54호, 153~166.

Brandt, M. E. & Boucher, J. D. (1986). Concepts of depression in emotion lexicons of eight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0, 321~346.

- Bretherton, I. & Beechly, M. (1982). Talking about internal states: The acquisition of an explicit theory of mind. *Developmental Psychology*, 18, 906~912.
- Ekman, P. (1984). Expression and the Nature of Emotion. In K. S. Scherer & P. Ekman (Eds.). *Approaches to emotion* (pp. 319~343). Hillsdale, NJ: Erlbaum.
- Ekman, P. (1992). Are there basic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9, 550~553.
- Ekman, P. (2003). *Emotions Revealed: Recognizing faces and feelings to improve communication and emotional life*. New York: Times books.
- Epstein, S. (1984). Controversial Issues in Emotion Theory. In P. Shav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 pp. 64~88). Beverly Hills, CA: Sage.
- Izard, C. E. (1977). *Human emotions*. New York: Plenum Press.
- Larsen, R. J. & Diener, E. (1992). Promises and problems with the circumplex model of emotion.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 25~59.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tsumoto, D. (1989). Cultural influences on the perception of emo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0, 92~105.
- Matsumoto, D., Consolacion, T., Yamada, H., Suzuki, R., Franklin, B., Paul, S., Ray, R., & Uchida, H. (2002). American-Japanese cultural differences in judgments of emotional expressions of different intensities. *Cognition and Emotion*, 16, 721~747.
- Mesquita, B., Frijda, N. H., & Scherer, K. R. (1997). Culture and Emotion. In J. W. Berry, P. R. Dasen, & T. S. Saraswath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Basic processes and human development* (Vol. 2: pp. 255~297).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Osgood, C. E., Suci, G. J., & Tannenbaum, P.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 Planalp, S. (1999). *Communicating Emotion. Social, Moral, and Cultural Process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lutchik, R. (1980). A General Psychoevolutionary Theory of Emotion. In R. Plutchik & H. Kellerman (Eds.). *Emotion: Theory, research, and experience. Vol. 1. Theories of emotion* (pp. 3~33). New York: Academic.
- Rosch, E. (1973). On the internal structure of semantic categor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4, 192~233.
- Rosch, E. (1978). Principles of Categorization. In E. Rosch & B. B. Lloyd (Eds.). *Cognition and categorization* (pp. 27~48). Hillsdale, NJ: Erlbaum.
- Roseman, I. J. (1991). Appraisal determinants of discrete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5(3), 161~200.

Russell, J. A. (1980). A circumplex model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61~1178.

Russell, J. A. (1983). Pancultural aspects of the human conceptual organization of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281~1288.

Russell, J. A. (1991). Culture and the categorization of emo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0(3), 426~450.

Shaver, J., Schwartz, D., Kirson, D., & O'Connor, C. (1987). Emotion knowledge: Further exploration of a prototype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061~1086.

Shaver, J., Wu, S., & Schwartz, J. C. (1992). Cross-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Emotion and its Representation: A Prototype Approach. In M. S. Clark (Ed.), *Emotion: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3, pp. 175~212). Newbury Park, CA: Sage.

최초 투고일 2007년 8월 17일

게재 확정일 2007년 11월 16일

〈부록 1〉

한국어 정서 단어(265개)의 인지도 및 전형성 평가(*115개 대표 정서 단어)

정서 단어	인지도	전형성 평균 (표준편차)	정서 단어	인지도	전형성 평균 (표준편차)
가없다	100.0%	4.22 (0.81)	답답하다*	100.0%	4.22 (0.76)
가증스럽다	98.5%	3.93 (1.02)	당혹하다*	99.3%	4.06 (0.95)
갈등하다	98.5%	3.43 (1.16)	당황하다*	100.0%	4.10 (0.92)
갈망하다	98.5%	3.89 (1.04)	덜덜하다	99.3%	3.69 (0.92)
감격하다*	100.0%	4.37 (0.75)	도취하다	96.3%	3.52 (1.00)
감동하다*	100.0%	4.35 (0.81)	동감하다	100.0%	3.68 (1.05)
감명받다	100.0%	3.98 (0.91)	동경하다	100.0%	3.82 (0.97)
감미롭다	99.3%	3.60 (1.07)	동정하다	100.0%	3.94 (0.92)
감탄하다*	100.0%	4.02 (0.90)	두렵다*	100.0%	4.34 (0.78)
거부감 느낀다	100.0%	3.99 (0.94)	들뜨다	100.0%	4.07 (0.87)
걱정하다*	100.0%	4.04 (0.91)	따분하다	100.0%	4.10 (0.87)
겁나다*	100.0%	4.25 (0.82)	떴떴하다	100.0%	3.58 (1.06)
격분하다*	100.0%	4.37 (0.81)	뜨끔하다	100.0%	3.81 (1.04)
경멸하다*	99.3%	4.19 (0.84)	막막하다	100.0%	4.04 (0.90)
경쾌하다	100.0%	3.90 (1.09)	만족하다	100.0%	4.08 (0.90)
고독하다	100.0%	4.40 (0.73)	맘놓다	100.0%	3.53 (1.05)
고립감을 느낀다	99.3%	4.06 (0.91)	망설이다	100.0%	3.66 (1.01)
고맙다*	100.0%	4.22 (0.85)	매료되다	98.5%	3.71 (1.00)
고민하다	100.0%	3.48 (1.09)	맥빠지다	100.0%	3.68 (0.92)
곤혹스럽다	99.3%	4.03 (0.92)	멋쩍다	98.5%	3.72 (0.92)
궁감하다	100.0%	3.75 (1.09)	무덤덤하다	100.0%	3.89 (0.96)
공포를 느끼다	100.0%	4.22 (0.92)	무력감을 느끼다	100.0%	3.94 (0.96)
패심하다*	100.0%	4.10 (0.86)	무료하다	98.5%	3.75 (0.96)
괴롭다*	100.0%	4.42 (0.80)	무섭다*	100.0%	4.32 (0.78)
교감하다	97.7%	3.09 (1.13)	무시무시하다	99.3%	3.66 (1.12)
귀찮다	100.0%	3.93 (1.06)	무안하다	100.0%	4.15 (0.80)
그림다*	100.0%	4.47 (0.66)	몽클하다	99.3%	4.31 (0.76)
궁지를 느끼다*	100.0%	3.95 (0.91)	미안하다*	100.0%	4.36 (0.78)
기겁하다	100.0%	3.84 (1.01)	민망하다*	100.0%	4.31 (0.75)
기막하다	100.0%	4.05 (0.91)	밟다*	100.0%	4.41 (0.82)
기쁘다*	100.0%	4.54 (0.69)	반감을 갖다*	100.0%	3.84 (1.04)
기죽다	100.0%	3.69 (1.05)	반감다*	100.0%	4.27 (0.76)
긴장하다	100.0%	3.94 (0.96)	반하다	100.0%	3.80 (1.00)
꺼림직하다	100.0%	4.02 (0.88)	발끈하다	99.3%	3.98 (1.00)
끔찍하다	100.0%	3.98 (1.09)	배신감을 느낀다*	99.3%	4.22 (0.88)
낙이 없다	97.8%	3.45 (1.06)	보람차다*	100.0%	3.95 (0.89)
낙이 있다	96.3%	3.62 (0.97)	부끄럽다*	100.0%	4.39 (0.72)
낮간지럽다	98.5%	3.72 (0.98)	부럽다*	100.0%	4.31 (0.73)
낮뜨겁다	99.3%	3.95 (0.95)	분개하다	99.2%	4.33 (0.81)
놀라다*	100.0%	4.20 (0.85)	분노하다*	100.0%	4.55 (0.69)
놀랍다	100.0%	4.16 (0.91)	분하다*	100.0%	4.54 (0.62)
눈물겹다	100.0%	3.91 (1.07)	불만이다*	100.0%	3.93 (0.89)
누우치다	100.0%	3.60 (1.04)	불쌍하다*	100.0%	4.32 (0.86)
다행스럽다*	100.0%	3.70 (1.08)	불안하다*	100.0%	4.40 (0.70)
달가워하다	97.8%	3.75 (0.97)	불쾌하다*	100.0%	4.37 (0.77)
담담하다	98.5%	3.75 (1.01)	불편하다	100.0%	3.98 (0.93)

정서 단어	인지도	전형성 평균 (표준편차)	정서 단어	인지도	전형성 평균 (표준편차)
불행하다*	100.0%	3.71 (1.24)	쑥스럽다*	100.0%	4.22 (0.79)
비장하다	100.0%	3.61 (1.09)	쉴쉴하다*	100.0%	4.37 (0.78)
비참하다*	100.0%	4.32 (0.87)	썸썸하다	98.5%	4.10 (0.83)
뿌듯하다*	100.0%	4.24 (0.73)	아니꼽다	99.2%	3.98 (0.95)
사랑스럽다*	100.0%	4.25 (0.91)	아련하다	99.2%	3.96 (1.01)
사랑하다*	99.2%	4.44 (0.81)	아쉽다*	100.0%	4.17 (0.80)
사모하다	99.3%	3.98 (1.01)	아찔하다	98.5%	3.69 (1.05)
사무치다	96.3%	3.95 (0.99)	안도하다*	100.0%	3.99 (0.87)
살맛나다	100.0%	3.85 (0.95)	안락하다	98.5%	3.60 (1.00)
상실감 느끼다*	100.0%	4.16 (0.81)	안심하다	100.0%	3.93 (0.91)
상쾌하다	100.0%	3.95 (0.88)	안쓰럽다	100.0%	4.18 (0.79)
상큼하다	100.0%	3.34 (1.18)	안정되다	100.0%	3.66 (1.03)
샘나다	100.0%	4.24 (0.77)	안타깝다*	100.0%	4.25 (0.75)
서글프다*	100.0%	4.33 (0.80)	암담하다	98.5%	3.99 (0.91)
서러워하다	100.0%	4.30 (0.81)	애달프다	97.8%	4.16 (0.87)
서럽다*	100.0%	4.44 (0.75)	애정을 느끼다	100.0%	4.26 (0.82)
서먹하다	99.3%	3.56 (1.03)	애지중지하다	100.0%	3.59 (1.09)
서운하다*	100.0%	4.45 (0.76)	애처롭다*	100.0%	4.11 (0.92)
선호하다	100.0%	3.29 (1.11)	애타다	99.2%	4.25 (0.79)
설레다*	100.0%	4.44 (0.58)	애틡하다*	100.0%	4.29 (0.84)
섬뜩하다*	99.3%	4.15 (0.87)	야속하다*	100.0%	4.07 (0.86)
섭섭하다	100.0%	4.38 (0.69)	약오르다*	100.0%	4.11 (0.88)
성나다	100.0%	4.30 (0.88)	알밟다*	100.0%	4.19 (0.79)
성내다	100.0%	4.04 (1.02)	어이없다	100.0%	3.88 (0.99)
성취감 느끼다*	100.0%	4.07 (0.89)	어쩔 줄 모르다	100.0%	3.51 (1.07)
소름끼치다*	100.0%	4.24 (0.79)	어처구니없다	100.0%	3.81 (0.98)
소외감을 느낀다*	100.0%	4.10 (0.90)	억울하다*	100.0%	4.34 (0.78)
속상하다*	100.0%	4.48 (0.69)	언짢다	100.0%	4.17 (0.79)
속 시원하다*	100.0%	4.28 (0.79)	역겹다*	99.3%	4.13 (0.86)
속타다	100.0%	4.15 (0.84)	연민을 느끼다*	99.3%	4.04 (0.89)
수치스럽다*	100.0%	4.30 (0.79)	열광하다*	99.2%	3.90 (1.01)
순정을 느끼다	82.8%	3.60 (1.09)	열등감을 느끼다	100.0%	3.99 (0.95)
슬프다*	100.0%	4.64 (0.63)	열망하다*	98.5%	3.95 (0.97)
시기하다	100.0%	3.98 (0.85)	열정을 갖다	100.0%	3.68 (1.07)
시무룩하다	100.0%	3.99 (0.91)	열려하다	99.3%	3.74 (0.97)
시원섭섭하다	100.0%	4.17 (0.92)	영광스럽다*	100.0%	3.78 (1.02)
시큰둥하다	99.3%	3.75 (0.95)	운정을 느끼다	99.3%	3.95 (0.94)
식상하다	100.0%	3.50 (1.03)	외롭다*	100.0%	4.54 (0.63)
신경질나다*	100.0%	4.34 (0.81)	우습다	100.0%	3.86 (1.05)
신나다*	100.0%	4.53 (0.67)	우울하다*	100.0%	4.51 (0.65)
신명나다	97.0%	3.93 (0.97)	우쭐하다	99.2%	3.79 (1.03)
신바람나다	99.3%	4.01 (0.96)	울적하다	100.0%	4.49 (0.62)
실망하다*	100.0%	4.11 (0.80)	원망하다*	100.0%	4.26 (0.81)
싫다*	100.0%	4.41 (0.84)	원통하다	99.3%	4.29 (0.88)
싫증나다	100.0%	3.94 (0.98)	유감스럽다	100.0%	3.82 (0.99)
심란하다*	100.0%	4.26 (0.84)	유쾌하다*	100.0%	4.21 (0.90)
심심하다	100.0%	3.87 (1.08)	의기소침하다	99.3%	3.83 (0.85)
싱숭생숭하다	99.3%	4.05 (0.92)	의기양양하다	100.0%	3.77 (1.01)

정서 단어	인지도	전형성 평균 (표준편차)	정서 단어	인지도	전형성 평균 (표준편차)
의심하다	100.0%	3.51 (1.03)	평화롭다	99.3%	3.31 (1.09)
이뻐하다	100.0%	3.61 (1.18)	한땀하다	100.0%	4.05 (0.98)
자랑스럽다*	100.0%	4.07 (0.87)	한심스럽다	99.2%	3.77 (1.04)
자만하다	100.0%	3.22 (1.14)	행복하다*	100.0%	4.53 (0.75)
자부하다	99.3%	3.63 (1.02)	항수 느끼다	100.0%	3.99 (0.97)
자신만만하다	100.0%	3.88 (0.95)	허무하다*	100.0%	4.18 (0.82)
재미있다*	100.0%	4.10 (0.88)	허진하다*	100.0%	4.14 (0.89)
절망하다*	100.0%	4.20 (0.91)	허탈하다*	100.0%	4.12 (0.91)
절박하다*	100.0%	4.14 (0.85)	혐오하다*	99.3%	4.37 (0.74)
정감있다	100.0%	3.96 (0.87)	호감있다	100.0%	4.16 (0.86)
정겹다	100.0%	3.99 (0.98)	홀가분하다	100.0%	4.11 (0.86)
정답다	99.2%	3.74 (1.11)	화나다*	100.0%	4.50 (0.71)
조마조마하다	100.0%	4.20 (0.77)	환멸을 느끼다*	94.0%	4.01 (1.06)
조바심나다	100.0%	4.00 (0.90)	환회를 느끼다*	100.0%	4.28 (0.87)
좋다	100.0%	4.30 (0.90)	황당하다*	100.0%	4.05 (0.90)
좌절하다*	100.0%	3.90 (1.03)	황홀하다*	99.3%	4.29 (0.93)
죄송스럽다	99.3%	4.00 (0.91)	후련하다*	100.0%	4.24 (0.82)
죄책감 들다*	100.0%	4.13 (0.78)	후회하다*	100.0%	4.06 (0.95)
주눅들다	100.0%	3.79 (0.98)	흐뭇하다*	100.0%	4.22 (0.83)
즐겁다*	100.0%	4.41 (0.76)	흠모하다	97.0%	3.87 (0.96)
즐기다	100.0%	3.80 (1.08)	흠족하다*	100.0%	4.13 (0.78)
증오하다*	100.0%	4.48 (0.75)	흠겹다*	100.0%	4.32 (0.79)
지겹다	100.0%	4.11 (0.89)	흥나다	98.5%	4.11 (0.90)
지긋지긋하다	100.0%	4.10 (0.86)	흥미롭다	100.0%	4.03 (0.90)
지루하다*	100.0%	4.13 (0.87)	흥미진진하다	100.0%	4.03 (0.97)
질리다	100.0%	3.83 (0.92)	흥분하다*	100.0%	4.25 (0.92)
질투하다*	100.0%	4.25 (0.78)	희망을 느끼다*	100.0%	3.75 (0.94)
짜증나다*	100.0%	4.54 (0.68)	희열을 느끼다	98.5%	4.17 (0.91)
짜사랑하다	100.0%	3.72 (1.23)	희희낙락하다	95.5%	3.71 (1.11)
평하다*	100.0%	4.47 (0.69)			
착잡하다*	100.0%	4.22 (0.74)			
참답하다*	99.3%	4.02 (0.99)			
창피하다*	100.0%	4.47 (0.69)			
처량하다	100.0%	3.88 (0.97)			
처참하다	100.0%	3.86 (0.98)			
체념하다*	100.0%	3.74 (0.96)			
초조하다*	100.0%	4.25 (0.79)			
충격받다	100.0%	3.82 (1.01)			
충족감을 느끼다	100.0%	3.90 (0.89)			
측은하다*	99.3%	4.16 (0.85)			
치욕스럽다	99.3%	4.25 (0.83)			
쾌감을 느끼다	99.3%	4.12 (1.04)			
토라지다	100.0%	3.54 (1.11)			
통쾌하다*	100.0%	4.45 (0.73)			
편안하다*	100.0%	4.01 (0.90)			
편하다	100.0%	3.98 (0.94)			
평안하다	99.3%	3.85 (1.02)			
평온하다	100.0%	3.68 (1.15)			

Classification of Emotion Terms in Korean

June Woong R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Hyun Joo Song

Hallym University

Eun Kyung Na

Korea Press Foundation

Hyun Suk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basic level category of Korean emotion terms and to explore underlying dimensional structures of emotions. A group of 170 students evaluated prototypicality of 265 emotion terms selected from Park and Min's (2005) emotion study. Another group of 109 participants sorted out the list of 115 emotion terms with high prototypicality using a criterion of similarity. The data of similarity sorting were subject to cluster analysis. The resulting dendrogram suggested a basic level of emotion categories comprising the positive emotions such as 'joy', 'pride', and 'love' and the negative ones such as 'fear', 'anger', 'pity', 'shame', 'frustration', and 'sadness.' The similarity sorting data were transformed into a distance matrix and analyzed using MDS. A two-dimensional structure of emotions was obtained: The first dimension was 'affective valence', the second 'arousal.' An additional analysis revealed the third dimension identifiable as 'self or other- centered orientation.' Implications of the basic level emotions for communication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emotion, discrete emotions, emotion terms, affect, categorization, classification, Korean corpus